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Anger Rumination Scale)의 타당화 연구*

정 은 의

송 현 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분노의 유발 및 심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노반추에 주목하였다. 특히 분노 통제의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반추를 측정하는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를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고,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515명을 대상으로 분노반추척도를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달리 3요인,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가 추출되었다. 또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우수했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는 분노 및 공격성, 특질상위기분,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이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가 분노반추 양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반추,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논문은 2009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현주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심리치료학 / (139-77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 / Tel : 02-970-5888 / E-mail : jayoo1004@swu.ac.kr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로, 아주 작은 수준의 짜증에서 격분과 같은 강한 흥분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관적인 정서이다. 이러한 분노는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 해석과 의미부여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경험하게 된다(Averill, 1982; Ellis & Tafrate, 1997; Deffenbacher & McKay, 2000). 즉,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 및 분노의 유발 과정에 있어서 분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서를 이해하는 중심요소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분노 경험이나 유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반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노 상황 속에서 자기 초점화된 반추는 분노 정서에 집중하게 되어 분노의 강도를 증폭시킬 수 있고, 공격성을 높이며,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를 종결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또한 분노 상황에 대한 반추적 사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부당하다고 여기며, 상대방을 탓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Nolen-Hoeksema, 1991; Kassinove & Sukhodolsky, 1995). 특히 대인관계에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공격성은 증폭되고,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며, 대인간 용서하는 경향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llins & Bell, 1997; McCullough, Bellah, Kilpatrick & Johnson, 2001). 그런 반면 반추적 사고가 지닌 긍정적인 기능으로,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에 불일치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

추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Martin & Tesser, 1996). 특히 우울반추에서 자신의 우울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고는 자신의 기분이나 증상에 주의를 두게 되어 자신의 기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Nolen-Hoeksema, 1996). 그러나 우울은 활성화가 낮은 기분인데 반해 분노는 활성화가 높은 기분이며(Thomsen, 2003),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반추의 역할은 다른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분노 상황을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추는 과거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고, 비의도적인 사고 과정이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이근배, 조현춘,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반추적 사고는 개인이 경험한 분노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며, 분노 사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분노의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분노반추는 개인의 특정 과거 사건으로 유발된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노반추는 분노가 유발된 상황 이후의 인지적 과정으로써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도록 하여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분노반추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 타인들까지도 분노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분노반추가 분노 유발 및 심화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개인의 특정한 분노 사건과 관련된 인지적 활동이라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분노반추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에서 반추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된 평가도구는 분노반추를 충분히 측정해주지 못한다. 즉 사건영향척도(Impact of Event Scale; Horowitz, Wilner & Alarez, 1979),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of Depression Questionnaire; Nolen-Hoeksema & Morrow, 1991), 반복생각-반성적 생각 질문지(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 Trapnell & Campbell, 1999) 등이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척도들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우울과 관련된 반추 사고의 경향성을 측정해주지만 분노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추사고를 측정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보복과 같은 분노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했지만(Caprara, 1986) 이 척도 또한 분노반추의 한 측면만을 반영할 뿐 분노반추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을 평가하는데 불충분하다.

또한 분노 상황에서의 반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반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이근배, 조현춘, 2008)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대학생이나 성인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의 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인간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고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욕구의 불만을 겪게 되며, 쉽게 분노 감정을 경험한다.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분노수준이 높아지고 있다(Graham, Hudley & Williams, 1992 ; 장휘숙, 2002). 이는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분노 경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분노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드러나는 분노는 공격행동이나 비행의 주요 유발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또한 과도한 분노 억제로 인해 실질적인 내면의 분노는 해소하지 못한 채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arson, 1992; 채우경, 2001).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연구들은 비행이나 공격성 및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분노 통제 및 분노조절을 연구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 보이는 분노는 통제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분노 경험, 분노 촉발의 민감성 및 분노표현 등 분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은 주요 핵심 연구대상이며, 분노반추가 분노를 유지시키거나 증폭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 시기에 드러나는 분노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분노반추가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분노반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노반추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측정도구가 불충분하며, 연구의 대상 또한 대학생과 성인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반추를 측정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Sukhodolsky, Golub과 Cromwell(2001)은 주장하였고, 이들은 분노가 촉발되거나 유발된 이후에 전개되는 인지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Sukhodolsky 등(2001)은 분노반추가 분노사건을 경험하는 동안이나 분노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비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계속 되풀이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최근의 분노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 보았다. 이들의 연구(Sukhodolsky et

al., 2001)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분노반추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요인(19문항) 구조가 확인되었다; 첫째, 분노후사고(angry after thoughts: 최근의 분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둘째, 보복사고(thoughts of revenge: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앙갚음에 대해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경향), 셋째, 분노기억(angry memories: 과거에 있었던 분노 사건을 지속적으로 사고하는 경향), 넷째, 원인이해(understanding of causes: 분노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아울러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는 내적 일치도가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에서 이근배와 조현춘(2008)은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한 원척도를 국내 대학생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원척도와는 달리 3요인(16문항) 구조 모형이 확인되었으며(분노기억반추, 보복반추, 원인반추), Sukhodolsky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노후사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국내 연구에서는 분노기억 및 보복사고와 상당히 중첩됨을 알 수 있었다. 원척도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가 높았고, 교차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인반추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언급된 분노반추척도는 분노반추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측정 도구이며, 국외 및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결과 분노반추척도는 분노반추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임

이 밝혀졌다. 그러나 분노반추척도는 국외 및 국내 모두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를 청소년에게 활용해보지 않은 점을 착안하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따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노반추는 분노라는 정서에 대한 사고 과정으로, 자신의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기에 분노반추가 분노,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예상된다(Kassinove & Sukhodolsky, 1995). 이에 분노와 공격성을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당도로 선정하여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Novaco 분노척도, Buss-Perry의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반면 분노반추가 부정적인 정서에 매몰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정서에 관해 덜 생각하며,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는 분노반추와 차별적인 개념으로 예상된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Watkins, 2004). 분노반추와 차별적인 구성 개념으로 예상되는 정서조절능력, 낙관성을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특질상위기분척도,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동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를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으로 분노반추와는 상관이 없을 것

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도 변별 타당도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충청, 제주도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5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 263명, 여학생 252명으로 중학생 289명, 고등학생 226명이었다(중학교 1학년 131명, 중학교 2학년 133명, 중학교 3학년 25명, 고등학교 1학년 110명, 고등학교 2학년 116명). 이들 표본의 나이는 12세~17세까지로 평균연령(표준편차)은 14.73세(1.53)였다.

측정도구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이 척도는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 (2001)이 개발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분노후사고(angryafterthoughts, 6문항), 보복사고(thoughts of revenge, 4문항), 분노기억(angry memories, 5문항), 원인이해(understanding of causes, 4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거의 아니다, 2: 조금 그렇다, 3: 꽤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반추가 강함을 나타낸다.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후사고 .86, 보복사고 .72, 분노기억 .85, 원인이해 .77이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번안된 척도를 대학원생들에게

실시한 후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는 척도의 문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근배와 조현춘(2008)에 의해 번안된 분노반추척도가 원척도의 문항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아동·청소년 임상심리전공 교수(임상심리전문가)가 문항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다른 임상심리전문가(2인)에게 각자 독립적으로 문항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여 번안된 문항 내용과 원척도의 문항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3자간의 최종 협의를 통해 번안된 문항내용을 채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인 청소년들이 번안된 문항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내용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이 척도의 문항 이해를 돕고 가능한 문항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몇 가지 단어를 괄호에 넣어 보완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STAXI-K)

이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개발한 것을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 특성분노로 측정하는 문항과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상태분노 .87, 특성

분노 .85, 분노억제 .59, 분노표출 .63, 분노통제 .76이었다.

Novaco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이 척도는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인지적 각성,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Novaco(1994a)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남궁희승(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총 4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3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때때로 그렇다, 3: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이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권석만과 서수균(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만큼 그렇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이 척도는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가 개발한 것으로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의 정서를 반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고,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어느 정도 동의한다, 5: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거나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명료화', 불쾌한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즐거운 기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선믿음' 등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주의 .38, 명료성 .76, 개선믿음 .60로 나타났고, 내적 합치도가 낮은 주의 요인을 배제하였다.

성향적 낙관성(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이 척도는 개인의 낙관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Scherier, Carver와 Bridges(1994)가 개정한 삶의 정향 평가지이며,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Scale)

이 척도는 Crowne와 Marlowe(1960)이 개발한 것을 이주일(1988)이 번안하여 단축형으로 구성한 13문항의 질문지이다. 본 척도는 사회에서 규범적인 태도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각 문항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예/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5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주축요인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Direct Oblimin($\delta=0$)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간 변별이 낮은 요인계수를 보이는 5, 8, 10, 13, 19 문항들을 제거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이순목, 2006). 척도의 각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와 전체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요인을 Amos 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언급한 모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4.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가 추출되었으며, scree 검사 결과와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3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5%였으며, 각 요인별에서 설명변량은 요인 1은 전체 설명변량의 45.59%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11.25%, 요인

3은 8.15%를 설명하였다. 문항별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와 각 요인별 설명변량 등과 같은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첫 번째 요인은 원척도에서 분노후사고에 속하는 문항들(9번, 17번, 18번)과 분노기억에 속하는 문항들(1번, 2번, 3번, 14번)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요인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원인이해에 속하는 문항들(11번, 12번, 16번)이었고, 세 번째 요인은 원척도에서 보복사고(4번, 6번, 15번)와 분노후사고(7번)에 속하는 문항들이었다. 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 번째 요인은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등 분노사건 경험 후 그에 따른 반복적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원척도에서 설명하는 ‘분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인 ‘분노후사고’의 의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이름 그대로 ‘분노후사고’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등 분노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이름 그대로 ‘원인이해’라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경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등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것이며, 원척도에서 분노후사고에 해당되는 7번 문항은 분노 상황에 대한 반추와 더불어 상대방을 향한 ‘보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보복 관련 문항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세 번째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척도의 이름 그대로 ‘보복사고’라 명명하였다.

표 1.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탐색적 요인계수

번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CFA
1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94	-.10	-.06	.77
3	나를 화나게 한 사건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88	-.02	-.03	.78
2	부당한 대접(대우, 취급)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82	.09	-.11	.72
18	나를 화나게 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59	.14	.27	.83
9	분노(화)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동안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56	.18	.19	.75
14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가 난다.	.56	-.05	.32	.70
17	짜증나는 일은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도 얼마동안 나를 괴롭힌다.	.49	.27	.14	.69
12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08	.90	-.03	.74
11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03	.81	-.01	.72
16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경우 왜 그렇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07	.81	.03	.80
6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매우 힘들다.	-.14	-.03	.87	.58
1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양갓음을 하려고 한다.	.01	.05	.80	.72
4	싸움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참 동안 한다.	.29	-.05	.59	.72
7	논쟁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얼마동안 더 싸운다.	.18	.12	.57	.69
고유치(eigenvalue)		6.38	1.58	1.14	
설명변량(%)		45.59	11.25	8.16	

* 요인 1: 분노후사고, 요인 2: 원인이해, 요인 3: 보복사고

확인적 요인분석(추가 분석)¹⁾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

- 1) 확인적 요인분석은 본 연구의 표본과 다른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김계수, 2008). 그러나 동일한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비해 신뢰성 및 타당성에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기에(Gerbing & Anderson, 1988)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추가 분석하였다.

해 얻어진 3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들을 추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2와 그림 1에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을 df로 나눈 값, 즉 CMIN

표 2.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chi^2(df=74)$	CMIN/DF	RMSEA	RMR	GFI	AGFI	TLI	CFI
분노반추척도 3요인 14문항	337.93***	4.56	.083 (.074~.092)	.040	.903	.863	.907	.92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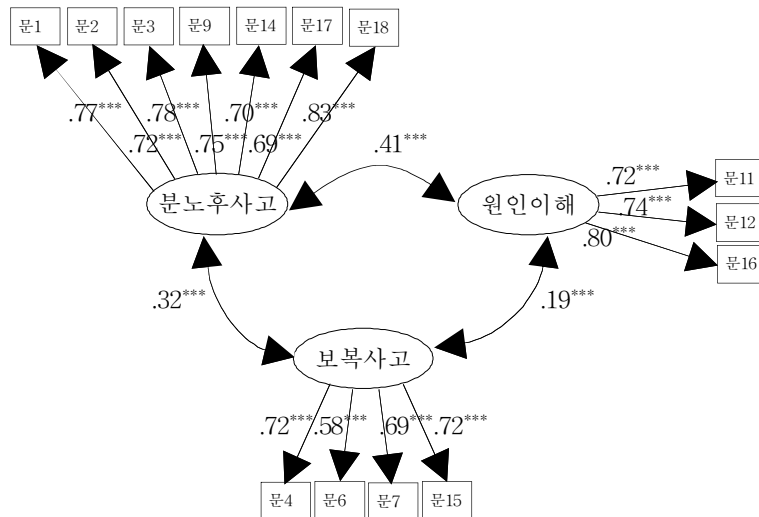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모형

/DF가 3보다 크게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Byrne, 1989). 그러나 χ^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적합도 GFI = .903, AGFI = .863, TLI = .907, CFI = .924, RMSEA = .083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의해 밝혀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요인 구조는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분노반추척도의 3개의 하위요인들과 14문항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범위는 .58~.83이었으며, 모든 경로의 계수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신뢰도

내적 합치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개 요인 구조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90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분노후사고 .90, 원인이해 .77, 보복사고 .80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에 따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별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노후사고와 원인이

해 간의 상관은 $r = .48, p < .01$, 분노후사고와 보복사고 간의 상관은 $r = .66, p < .01$, 원인이해와 보복사고 간의 상관은 $r = .35, p < .01$ 로 전체적으로 요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가적으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별 및 중·고등학생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중·고등학생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노후사고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원인이해와 보복사고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에 대한 성별과 중·고등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타당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반추와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분노, 공격성의 각 측정 도구들과 분노반추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분노반추척도가 특성분노척도, Novaco 분노척도 및 공격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분노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의 하위요인들 모두 특성분노척도, Novaco 분노척도 및 공격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전체 및 3개 하위요인들이 분노표현과의 관계

표 3.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및 하위요인과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	전체
STAXI-K 특성분노	.56**	.37**	.50**	.61**
분노표출	.39**	.27**	.41**	.46**
분노억제	.43**	.31**	.34**	.45**
분노통제	-.18	.18**	-.06	.01
Novaco 분노척도	.63**	.40**	.62**	.70**
공격성 척도	.50**	.33**	.52**	.58**
TMMS 명료성	-.24**	.02	-.20**	-.21**
개선믿음	-.21**	.04	-.18**	-.19**
성향적 낙관성	-.21**	.03	-.16**	-.18**
사회적 바람직성	-.27**	-.25**	-.16**	-.29**

주. STAXI-K=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TMMS= Trait Meta-mood scale

** $p < .01$

를 살펴보았다. 분노반추척도는 분노표현에 있어서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비해, 분노통제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분노표현과의 상관에서 하위요인들 모두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후사고와 보복사고는 분노통제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원인 이해만이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별 타당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반추와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 정서 조절,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분노반추척도가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개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분노후사고 및 보복사고 요인은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척도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분노반추척도와 이질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의미한다고 전적으로 볼 수 없기에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이 제안한 계산방법을 통해 산출된 계산 결과가 .85보다 낮을 경우 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변별 타당도 검증 결과 분노반추척도와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간의 관계를 계산공식에 의해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가 .03~.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들의 수렴 타당도뿐만 아니라 변별 타당도가 양호함이 시사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유발 및 심화에 영향을 미치며, 분노의 지속적인 경험으로 인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노반추에 주목하였다. 이에 분노반추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도구로서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2001)에 의해 개발된 분노반추척도를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가 정서적 동요가 쉽게 일어나며, 잦은 분노 경험으로 인해 분노수준이 높아지고, 분노 통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격적, 폭력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에 주목하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노반추척도가 국외 및 국내에서 분노에 취약한 중요 대상인 청소년에게 활용해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척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우선,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 척도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달리 3요인 구조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추가 분석을 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적절한 적합도를 보여 3요인 구조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즉,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는 분노사건 경험 후 그에 따른 반복적 생각과 관련된 ‘분노후사고’, 분노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는 ‘원인이해’,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에 대한 앙갚음이나 보복과 관련된 ‘보복사고’ 등으로 3 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원척도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문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연구 결과 16문항 3요인 구조가 보고되었다(이근배, 조현춘, 2008). 이처럼 원척도와 다른 요인 구조를 보인 것은 분노반추척도를 개발한 Sukhodolsky 등(2001)이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척도의 하위요인들 서로가 중첩되어 요인구조 상 원척도와 상이한 요인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거된 문항들 중 10번 ‘갈등이 있으면, 그 일을 지나치게 이모저모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13번 ‘폭력적인 상상이나 공상을 많이 한다’, 19번 ‘한 번 화가 나면 자꾸 화가 난다’ 문항들은 국내 대학생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제외된 문항

들로,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정서의 표현양상이거나 갈등해결양상과 관련된 문항들로 보이며,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대표하는 문항들이 아니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한편 5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 8번 ‘화났던 일들이 잠자기 전에 불쑥불쑥 생각난다’ 문항들은 국내 대학생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척도에 속하는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거된 문항들으로써 이는 표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14 문항 3요인 구조는 원척도에서 얻은 4요인 구조의 내용 영역 안에 포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로 측정된 분노반추는 분노,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으며,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했다. 분노반추는 분노의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분노 유발이나 분노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분노반추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서조절,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가 .85보다 낮은 .03~.42로 나타나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분노반추가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한 정서를 조절하고 환기시켜서 적응적인 정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며, 심리적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어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khodolsky 등(2001)의 연구와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분노반추척도와 분노표현 간의 상관에 있어 원척도의 하위요인들 모두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만이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생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문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척도의 성별 및 중·고등학생 간 차이에서, 분노반추의 전체 수준뿐만 아니라 3개 하위요인들 모두 성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척도에서는 보복사고 차원에서는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아울러 원척도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과 연령과의 관계에서 분노기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분노후사고에 있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분노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려는 경향성이 높았다. 국내의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인반추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가 서양과 동양의 문화 및 표집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론이나 연구 모형 유무와는 상관없이 측정도구 문항들 자체를

통해 살펴본 것이라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확인적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제거된 척도 문항이 연구자의 연구 모형에 있어 얼마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척도 문항이 얼마나 일관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은 모집단에서 본 연구의 표본과 다른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계수,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소년 표본을 대상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2세~17세에 이르는 청소년기의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고, 연구 대상의 발달적 측면을 세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분노후사고에 있어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분노후사고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노반추척도가 척도 전체 및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보다 많은 청소년을 표집하여 분노반추척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국내 대학생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만이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원척도 분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원인이해 과정

이 자기반성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xwell, Sukhodolsky, Chow와 Wong(2005) 연구에 따르면 분노반추가 분노의 유지 및 심화시킬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자신이 분노의 감정에 놓인 이유를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분노반추가 유발될 경우 냉정 효과(calming effect)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추가 부정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추적 사고 과정이 기능적 및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반추도 기능적인 역할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반추가 정서조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도구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가 심리치료를 하는 동안 분노반추 수준에 있어 변화에 민감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를 청소년에게 활용해보지 않은 점을 착안하여, 한국 청소년에게 분노반추척도를 사용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가 분노 관련 문제를 지닌 내담자에게 임상적 실제 영역에서 분노반추의 다각적인 양상을 측정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타당화 연구로, 청소년의 분노반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연구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분노 통제의 어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등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지닌 청소년 내담자들을 이해하는데 본 척도가 의미 있게 활용이 되고, 분노반추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확장된

다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및 임상적 실체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김계수 (200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남궁희승 (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순목 (2006).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장휘숙 (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 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81-96.
- 채유경 (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형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 - 459.
- Byrne, B. M. (1989). *A Primer of LISR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Caprara, G. V. (1986). Indicators of aggression: the dissipation-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7, 763-769.
- Campbell, D. T. & Fiske, D. W. (1956).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 Collins, K., & Bell, R. (1997). Personality and aggression: The dissipation-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 751-755.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354.
- Deffenbacher, J. L., & Ma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 and gender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2), 186-192.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in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Horowitz, M. J., Wilner, N., & Al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s: science, practice and common sense issues. In H. Kassinove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1), 101-117.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 (1993). Self-perpetuation properties of depressive ru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249-339.
- Martin, L. & Tesser, A. (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R. S. Wyer (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xwell, J. P, Sukhodolsky, D. G., Chow, C. C. F., & Wong, C. F. C. (2005). Anger

- rumination in Hong Kong and Great Britain: Validation of the sca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6), 1147-1157.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Nolen-Hoeksema, S. (1996). Chewing the cud and other rumination. In r. S Wyer(Ed), *Ruminative thought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Mahwah, NJ: Erlbaum.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1).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1989 Loma Prieta Earthqua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15.
- Novaco, R. W. (1994a). Clinical problem of anger and its assessment and regulation through a stress coping skill approach. In W. O'Donohue & L. Karsner(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Clinical technique and applications*. Allyn & Bacon.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Pennebaker, J. W., Editor.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er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verlag.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Thomsen, D. K. (2003). *Studies on the associations between rumination, negative affect and health-relation measure*. Ph D Thesis, University of Aarhus.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orm refl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284-304.
- Watkins, E. (2004). Adaptive and maladaptive rumination self-focus during emotional process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10), 1179-1189.
- 원고접수일 : 2009. 9.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27.
게재결정일 : 2009. 12. 1.

A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for Adolescents in Korea

Eun-Eui Jung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at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attention on anger rumination that could be important part of sustaining and augmenting anger. Specially it is difficult for adolescents to control anger, so we propose that anger rumination may be responsible for the mechanism to maintenance of anger. Grounded on translations of Anger Rumination Scale (Sukhodolsky et al; 2001), we investigated factorial equivalence between the original Anger Rumination Scale and the Korean Anger Rumination Scale for adolescents. To confirm ab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a total of 515 adolescents (263 boys and 252 girls) completed the Anger Rumination Scale, STAXI-K, Novaco Anger Scale, Aggression Questionnaire, Trait Meta-Mood Scal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and Social Desirability Scale. Factor Analysis of the scale results revealed a three-factor structure (AngryAfterthoughts, Understanding of Causes, Thoughts of Revenge), which differed from those reported in a previous study of the original scale. For adolescents in Korea, the Anger Rumination Scale and its subscale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We found the Anger Rumination Scale's convergent and discrimination validities via measures of anger and aggression, emotional regulation, optimism, and social desirability. The overall results suggested that the current Anger Rumination Scale is reliable and valid for the assessment of anger rumination of adolescents in Korea.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 Anger Rumination, Factorial equivalence, Reliability, Validity, Adolescent